

# 건축문화 사랑상

Vol.065 10. APRIL 2015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상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신임 회장(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 취임



정명철 제15대 광주건축사회장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박용묵 제28대 전남건축사회장  
 다산 건축사사무소



전병갑 제26대 전북건축사회장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인터뷰\_사람&issue  
 전북 전주시건축사회장\_  
 (주)길 건축사사무소\_ 이길환 건축사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3부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도시인가?\_ 신재욱(관련 지면 6면)

##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_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



시론 02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다\_ 서재형

취임사 03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신임 회장 취임사

설계경기 04 ~ 05  
 보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특별연재기고 06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3부\_ 신재욱

사람 & issue 07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길환 건축사와의 만남

NEWS 08 ~ 10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하고 신임 임원진 구성 /  
 광주건축사회 제15대 정명철 신임회장(주)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 취임

## 보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_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박재형 건축사



##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다.



서재형 건축사  
건축문화사상 편집인  
건축사사무소 선 대표  
archiseo@nate.com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 지 반세기만에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더불어 회장의 임기도 3년으로 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난 해 말부터 대한건축사협회는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었다. 그리고 연이어 각급 시·도건축사회에서도 선거가 치러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유난히 뜨거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물론 직선제가 도입되기도 했고,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으며, 참여가 쉬운 전자투표가 시행되었다는 점도 투표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회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투표율에 내포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회원들의 바람은 시·도건축사회장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직무를 시작한 대한건축사협회장과 시·도건축사회장은 투표율에 반영된 회원들의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투표율은 앞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때는 낮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클 때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태평성대 혹은 독재시대이거나, 후보자 또는 공약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투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고,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회원들은 지난 선거를 통해 협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은 것은 회원들이 여유롭게 태평성대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 건축사에게 태평성대란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작품활동도 하고 사회적 책무도 다할 수 있는 여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작금의 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하는 회원도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전쟁터와 유사하다면, 우리의 지도자는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할까?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많은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는 손자병법에서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리더가 누구이며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생존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인격이다. 인격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제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추더라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면 리더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존경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회원들 간의 인화단결도 유도할 수 없다면 그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손자는 완벽한 승리를 얻으려면 마음을 공략해야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둘째는 실력이다.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현장경험

도 풍부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상식의 폭도 넓어야 하고, 언변도 좋아야 한다. 정회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이라 건축적인 실력은 검증되었다고 보지만, 지금과 같은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건축사집단을 대표하는 지도자에 걸맞은 품격도 갖추어야 한다.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셋째는 소신이다. 사리사욕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질 줄은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과 굳건한 추진력은 회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지만, 전쟁터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기 때문에 지도자의 판단과 소신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넷째는 용기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걸거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과감히 포기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용기다. 오만 또는 만용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 주도권을 쥐면 기세를 몰아 공격하라, 죽음 앞에서 활로를 찾아라 등 손자병법에서는 용기에 관련된 명언이 많다. 그 만큼 지도자의 용기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엄격함이다. 어느 조직이나 룰은 존재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룰을 통한 질서가 반드시 존중되도록 해야 하며,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약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룰의 적용이 일정하지 않다면 결국 지도자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도 신상필벌과 온정주의는 명확히 구분하라 했고, 조직은 엄격과 관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모든 덕목을 갖춘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이며, 결국 진정성 있는 지도자만이 회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뢰는 지도자와 회원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될 것이다.

선거는 끝났고, 당선자들은 취임하였으며, 대한건축사협회와 시·도건축사회를 이끌어갈 진영도 새롭게 짜여졌다. 비록 선거로 들떴던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회원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한껏 집중되어 있다. 지도자의 판단과 행동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를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받았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혹시나'로 시작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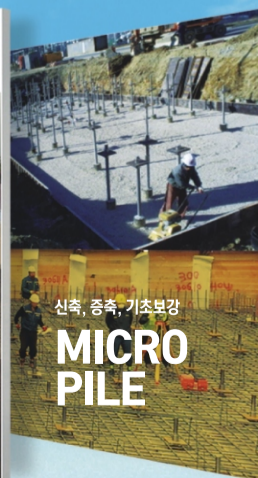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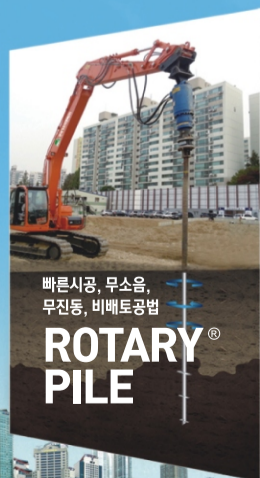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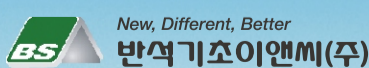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을 한 번 더 인용하면, 하수중의 하수는 전쟁에서 패한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리거나,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장수라고 한다. ☐

泣斬馬謖(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으로, 제갈량이 패장인 마속을 군령에 따라 목을 벤 것에서 유래되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 없이 제거하는 리더의 공정성과 과단성 및 엄격함을 일컫는다. 손자병법에서도 신상필벌과 온정주의는 명확히 구분하라 했다.

(본문의 내용 중 일부는 'http://egloos.zum.com/paperlion/v/320478' 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신임회장 취임사

##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취임사]



제15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15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정명철입니다.  
먼저 제14대 회장님인신 안길전 회장님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건축사회는 1986년 11월 창립 이래 근 30년간 우리 시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역대 회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314명의 광주건축사 회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30년의 건축문화 미래를 결정 짓고자 하며,

저와 새로운 집행부는 그 시작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분들이 있어야 협회가 존재하듯 저 정명철은 혼자가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열심히 하자! 늘 노력하자! 늘 최선을 다하자!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자연처럼 저 역시도 우리 건축사회 회원 분들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건축사회는 폭풍우를 만난 바다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위기에 닥친 그 배의 선원들과 선원들을 태운 배를 안전하게 항해 시키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능력일 것입니다.

회원 간의 소통! 행정기관과의 소통! 교육기관과의 소통!

이 3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건축계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건축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열린 귀를 준비하여 소수의 의견까지도 들을 것이며, 튼튼한 다리를 준비하여 어디든 뛰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원을 위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불안한 건축 환경에 맞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관록과 경륜, 후배님들의 젊음과 패기를 등에 업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 당당한 건축환경과 밝은 건축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업적을 쌓으신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을 도와 열정을 쏟으신 임원진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발로 뛰며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이 가득하시며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라남도건축사회장 취임사]



제28대  
전라남도건축사회장  
박용묵  
다산 건축사사무소

존경하는 전라남도건축사회원 여러분!  
2015년 봄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 희망의 봄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전라남도 건축사회 제28대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건축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와 사무소 양극화 그리고 업역 축소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부족한 시장의 업무량도 진입 장벽이 만들어져 이 분야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우리 건축계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의 문제라는 인식보다 외부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3년간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건축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건축문화제 등 건축문화 행사의 발굴과 함께 모든 건축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사랑의 집짓기와 건축사 재능기부 등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우리 건축사의 홍보와 위상을 높이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건축사님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들의 자존심 위상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建築士를 建築師로 쓰여 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간, 지역 간, 관련 기관 간 협력·화합·소통하여 불통에 따른 갈등 해소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 간에 MOU 체결하여 지역 간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법·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관련 법률, 지방 조례 등 제·개정 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끝으로 우리 전남 건축사 회원 모두가 안정된 업무수주와 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건축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축사의 삶의 질 및 품위 있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비록 경제적 고충도 크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많은 시기이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재도약을 밝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권익은 오직 우리 자신의 단결과 노력에 의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전라북도건축사회장 취임사]



제26대  
전라북도건축사회장  
전병갑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대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전병갑입니다.  
저는 50년이라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는 지난 65년도에 창립되어 금년이 50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동안 전라북도건축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선 선배, 동료, 후배 건축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터 전라북도건축사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관심과 애정은 우리 건축사회가 발전과 함께 좀 더 성숙해 가는 길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이제는 건축사가 주인이며 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뤄지며 진정으로 단합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한마음이 되는 전북건축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는 저번 선거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공약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중에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회원상호간의 친목, 건축문화 활성화, 국민의 안전과 더 좋은 건축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감리 현실화, 우리의 업역을 침체당하지 않는 행정협의체 등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 드린 일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축사님의 관심과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변화시대에 서서 정보 공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상생의 건축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축문화의 발전과 변화는 이제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좀 더 사회 속에서 접근하여 대중과 더불어 친근감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해 가는 길 또한 우리의 몫이라 생각하며, 우리 건축사회를 좀 더 알리고 사회 속으로 다가가는데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이 지면을 빌어 임기동안 전북건축사회가 발전하는 길에 헌신과 봉사, 단합과 화합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남중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건축사님들과 일하게 된 것을 거듭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분의 뜻을 깊이 간직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저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화합과 소통으로 전북건축사회가 하나 되어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한해도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함께 기쁨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4\_ 설계경기

본 설계공모는 공공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여가활동 장소제공 및 친환경적인 신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절감형 국민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당선작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미제재  
 가 작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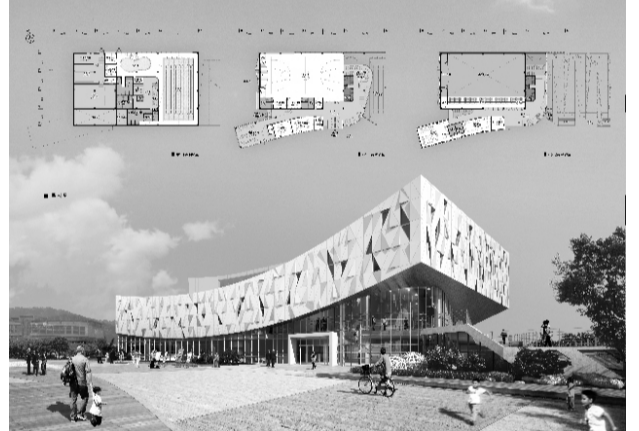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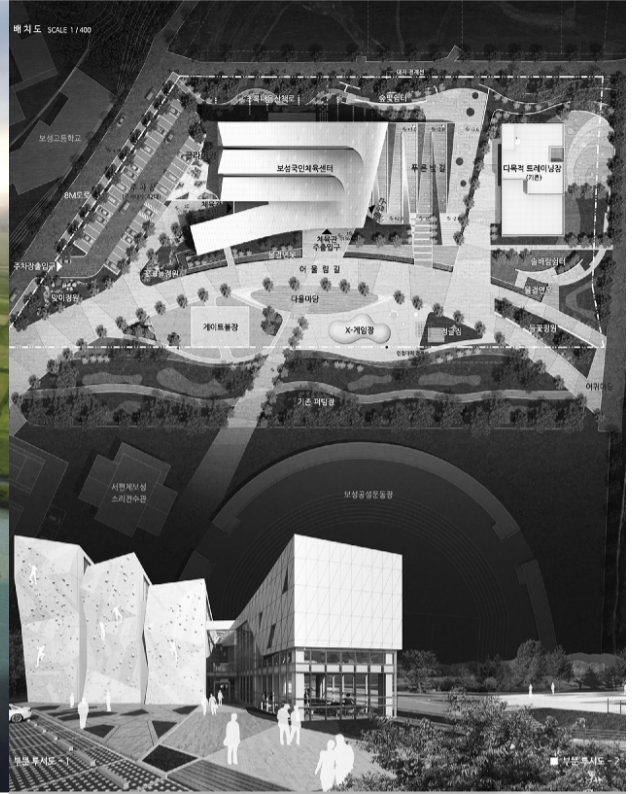
# 보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대지위치 :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174번지의 6필지 일원  
 대지면적 : 12,427㎡  
 건축면적 : 2,461.86㎡  
 연 면 적 : 4,535.80㎡  
 건 폐 율 : 19.81%

용 적 륜 : 25.16%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 금속패널, 노출콘크리트, 로이복유리  
 주 차 : 42대

**당선작**

박재형 건축사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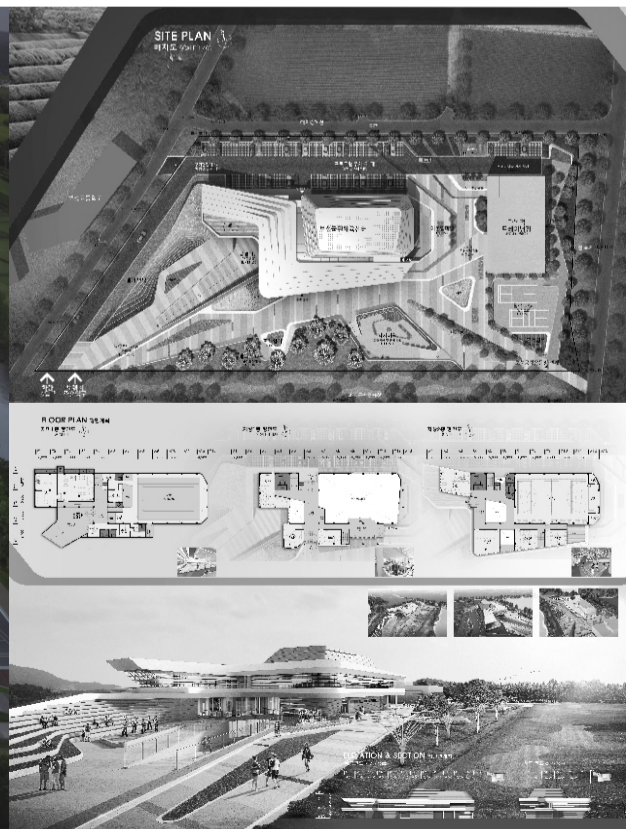


대지위치 :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174번지의 6필지 일원  
 대지면적 : 12,427㎡  
 건축면적 : 2,340.23㎡  
 연 면 적 : 4,527.52㎡  
 건 폐 율 : 18.83 %

용 적 륜 : 24.35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 AL스리트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고밀도목재패널  
 주 차 : 지상 61대(장애인5대 포함)

**가작**

이현조 건축사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본 설계공모는 광양만권 중심 배후지역인 신대지구가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민자치센터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행정복합시설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편리한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당선작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프리스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미제재  
 가 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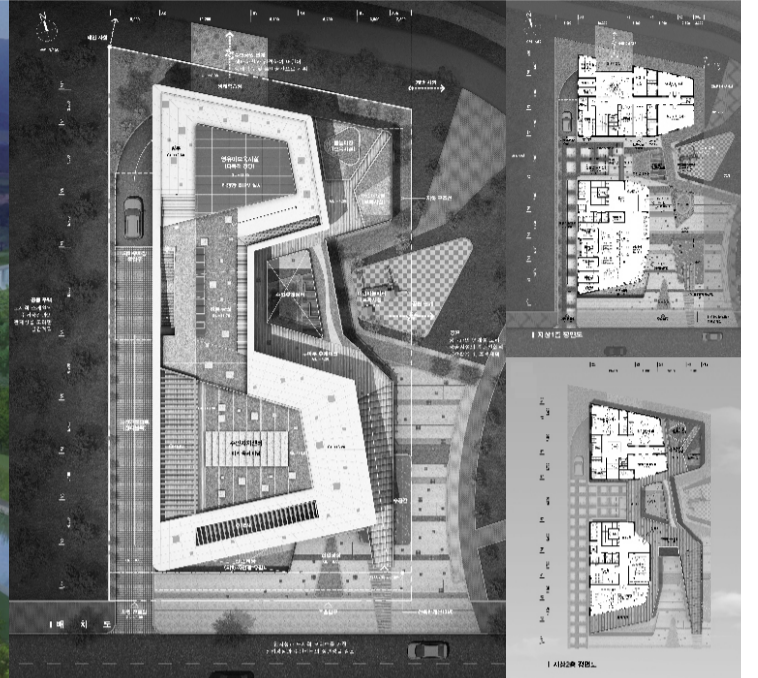
#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주민자치센터+영유아시설)

대지위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대지면적 : 1,837.20㎡  
 건축면적 : 1,082.02㎡  
 연 면 적 : 3,245.33㎡  
 건 폐 율 : 58.89% (법정:60%)

용 적 륜 : 106.28% (법정:300%)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적삼목, 고밀도 목재패널, 화강석, 현무암, 로이유리  
 주 차 : 33대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대지면적 : 1,837.20㎡  
 건축면적 : 932.89㎡  
 연 면 적 : 3,288.02㎡  
 건 폐 율 : 50.78% (법정:60%)

용 적 륜 : 112.51% (법정:300%)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라멘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쉬트접기, 징크패널, 점토벽돌치장살기  
 주 차 : 39대(장애인2대포함)

**가작**

류연창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 건축



#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3부



신재욱 사무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박사  
newurban@korea.kr

## >>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도시인가?

- 1부 : 건축사에게 도시계획의 의의 - 2015년 2월 게재
- 2부 : 좋은 도시의 요건은 무엇인가 - 2015년 3월 게재
- 3부 :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도시인가? - 2015년 4월 게재
- 4부 : 누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가 - 2015년 5월 예정

고성장시대의 종료와 함께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확장형 도시계획에서 건축적 기법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이 요구되면서 전통적 도시계획기법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흐름은 상징적으로 '2D'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양적(量的) 측면에서의 'Downsizing(축소)'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質的) 측면에서의 'Diversification(다양화)'이다.

양적 측면에서 '축소'의 흐름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사회의 도래에 의한 것으로, 장래 도시인구 증가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택지 등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미리 준비해두는 도시계획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질적 측면의 '다양화'는 도시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이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창조적 인력을 유입하도록 하고, 창조적 인력이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 가면서 도시를 발전하도록 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도시계획과 건축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고성장 시대에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와 저성장기에 접어들어 따라 정부의 정책이 신도시개발에서 도시성장관리로 바뀌고, 복지분야 예산 비중의 확대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의 정부 발주물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유래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는 어떻게 도시를 바라보고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야 할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의 도시 및 건축

25~49세의 생산활동 인구가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8%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은 2009년부터 핵심노동력 계층이 연평균 1.1% 감소하여 2010년 61.5%에서 2030년 48.8%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터드러커는 "미래사회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진행되는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경제의 경우는 인구감소→소비감소→경기침체→저출산 심화 등의 악순환으로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4.6%에서 1990년대 1.2%, 2000년대에 0.5%까지 하락했다. 이에 대하여 이와타 가쓰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에 불과"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방지하면 2040년대엔 축소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했다.

저성장시대의 건축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변화되어야 한다. 1970년대의 성장률 10.3%, 1980년대 9.8%와 같이 고성장이던 시대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과 건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 시대의 키워드는 물리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외연적 확산에서 콤팩트 시티로, 신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등을 들 수 있다.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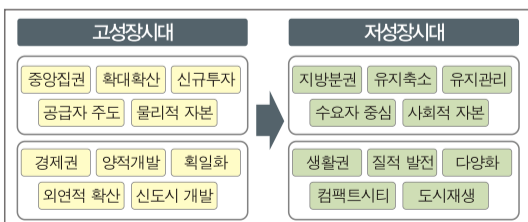


그림1. 고성장시대와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도시계획 모델로 '압축형 고밀도시(Compact City)'를 들 수 있다. 이는 주거, 직장, 상업 등 일상적인 도시기능들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부로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밀집되게 계획하여 개발하는 것이다.<그림2, 3> 참조 또한 주거, 공업, 상업, 녹지 등으로 분리하고 있는 기존의 용도지역제(Zoning)와는 달리 각 기능들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혼합도지이용(Mixed-LandUse)형태를 취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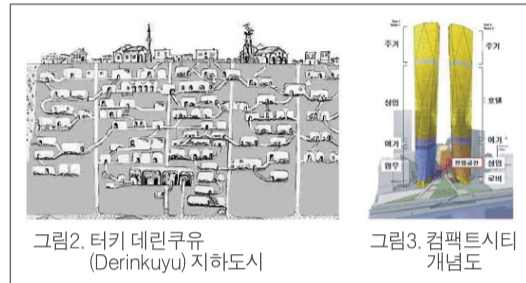


그림2. 터키 데린쿠유(Derinkuyu) 지하도시

그림3. 콤팩트시티 개념도

\* 지하 8~11층으로 약 3,000~5,000명 주거지, 와인 저장고, 교회, 학교 등 복합시설을 설치(B.C 7~8세기) 압축형 고밀도시의 실천가능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공간적으로 집약화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예로 분당 신도시를 대상으로 콤팩트시티 시뮬레이션으로 하여 보니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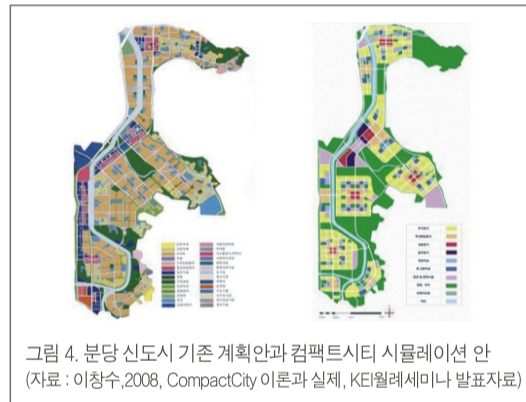


그림 4. 분당 신도시 기존 계획안과 콤팩트시티 시뮬레이션 안 (자료 : 이창수, 2008, Compact City 이론과 실제, KETI월례세미나 발표자료)

### 에너지 부족시대의 도시계획

포브스 수석기자인 크리스토퍼 스타이너는 '석유종말시계'라는 책을 통하여 유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동안 우리의 삶과 도시구조의 변화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는 리터당 2,500원이 되면 항공산업이 몰락되며 3,000원이 되면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로 주유소가 전기충전소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3,500원이 되면 도시외곽 주택단지의 매력이 떨어져 도심으로 돌아오는 자발적인 도심재생이 되며, 4,100원이 되면 도시외곽에 있는 아울렛·윌마트의 몰락이 된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시대의 효과적인 도시계획 대안으로 대중교통과 복합용도개발이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 출신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피터칼썬(Peter Calthorpe)은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고밀개발을 추구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접근통행거리를 단축시키는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모델을 발표하였다. TOD는 철도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은 고밀도 상업 및 주거시설 개발, 중심지와 인접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고밀도의 주거시설과 주변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주거밀도로 이루어지는 배치하고, 도보접근이 가능한 반경 400~800m의 대중교통지향적 근린지역 형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애틀에서는 대중교통 역을 기준으로 반경 약 1.4km내외에 근린생활시설들을 배치하였다. TOD모델은 1.4km범위내 근린시설들과 주택들이 밀도의 위계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것에 반해, 대중교통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근린지구는 1.4km이상의 보행권의 범위를 넘어서 근린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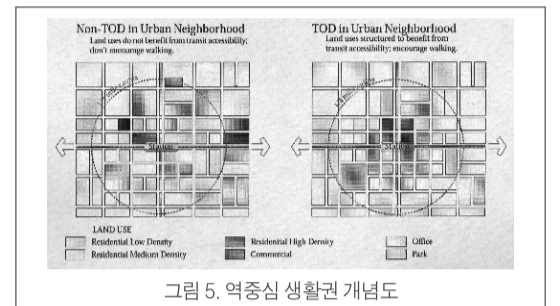


그림 5. 역중심 생활권 개념도

### 창조적 인력을 위한 도시계획

물리적 방법으로 도시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도시를 빠뜨릴 수 없다. 창조도시라는 것은 없었던 환경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창조동인은 탤런트(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탤런트 즉 인재이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2000년 이전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하여 기업, 공장이 들어와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넘어오고 있다. 2차 산업 위주에서 3차 산업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식 산업을 끌고 가는 집단은 창조인력 즉, 전문가 집단이다. 전문가 집단이 많이 밀집하면 밀집할수록 3차 산업은 젊은이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게 된다. 그래서 도시를 창조적,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몰려 올 수 있도록 살기도 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인력들이 온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이나 직장이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것이다. 최근 도시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중공업 업종과 같은 전통적 산업보다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과 같은 혁신적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찰스 맨들리라는 학자는 사회가 자꾸 침체되고 있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사람을 많이 흡수해오면 그 도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주장을 했다. 기존 연구논문에서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 창조적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 문화예술, 문화행사 등 문화적 환경이 많은 도시일수록 창조적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더라라는 연관관계를 찾았다.

도시는 도전과 응전을 거치면서 쇠퇴하기도 하고 발전·진화하는 유기체이다. 한 개인도 인생을 살면서 발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렵게 변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도시도 여러가지 외부 침략을 당하고 때로는 불이 나서 도시 전체가 타버리는 일도 있어 왔다. 그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창조적인 사람이 모여든다.

위와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모델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들 계획이론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심층적인 고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사례적용을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 거듭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세기동안 계획의 전문직화를 지탱해 주었던 기술과 전문지식이 경계로 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급격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는 기존의 부문적이고 조직체별 경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는 건축의 집합체이며 건축경쟁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즉 건축과 도시는 별개가 아니므로 건축과 도시의 상호 협력한다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길환 건축사와의 만남

전북 전주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6일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를 선출했다. 이길환 건축사는 전북에서 최대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열정과 패기를 앞세워 본업은 물론이고 사회활동과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길환 건축사. 그가 회장으로 취임한 전주시건축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뭇 기대된다. 지난 4월 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주)길 건축 사옥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전북 전주(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전주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회원들 상호간 불협화음도 있지만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목들이 겨울에 움츠리고 있지만 봄이면 가지개를 펴고 푸른 새싹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 회원들도 서로 돕고 노력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를 비롯한 임원들이 힘을 합쳐주면 두 배의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방식이 희망과 열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주시건축사회를 이끌어 가실 방향에 대해...(관련 정책 등)

맨 먼저 임원진을 꾸리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 선배 회장님들께서도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건축사회 임원진 전원을 50대 이하의 젊은 건축사 위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선배님들이 많이 임원진에 계시기에 힘들었습니다만 한분 한분 다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제가 갈 방향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단 한분도 언짢아 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제 청을 받아 주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선배님들은 이미 협회에 관심도 많고 사랑으로 참여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건축사들은 관심이 낮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게 우선인거 같아 임원진 구성에 모험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원들과 노력하여 비회원 수를 줄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부터 챙길 생각입니다. 또한 대관청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사업계를 보호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주시건축사회 회원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협회는 남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건축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협회를 이용하여 어려운 점도 해결하시고 협회가 바람막이가 되어 회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잘 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최근 단체 고발건 등으로 협회가 뒤숭숭합니다. 엇그제는 많은 회원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협회의 일이고,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회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고등학교 때까지 등잔불을 켜고 공부하는 학생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초가집에... 등잔불에... 쌀은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도 국립으로 갔습니다. 빨리 취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야간 학원을 다니며 대학에 어렵게 끌려오 입학하였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오로지 1등에게만 주어지는 학비면제를 받기위해 1등만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미술대전 건축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때 진로를 설계로 변경하

였습니다. 원하던 대로 가난을 씻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건축사 첫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무실 오픈 후 10년간 12시간에 퇴근한 날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뒤돌아보면 대학 1학년부턴 15년 넘게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은 1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방 사무소의 위상도 높이고 지역시장도 지켜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 철학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직원들에게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설계를 잘못해 문고리 하나 잘못 달면 그 집이 존재하는 한 사는 사람은 평생 불편하니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길 건축'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희망을 주곤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자하 하디드의 영화를 보며 많이 좋아합니다. 자하 하디드는 최초 시작시 10년 넘게 많은 공모전에서 대부분 떨어졌지만, 그 철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의 철학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길 건축도 가끔은 부드러운 곡선에 의한 3차원 공간을 만들고 싶어 몇 번 시도했지만 쉽지않은 않네요!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제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어 설계했던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설계기간 6개월에 20여억 원이 넘는 설계비였는데, 작업의 난이도와 건물의 특이함 때문에 설계기간이 무려 3년이 초과되고, 설계비는 5억 정도 적자를 본 건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스타센터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으니까요.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간 오랫동안 건축사 업계를 지켜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꿋꿋하게 이 시장을 지켜오셨습니다. 또한 젊은 후배들을 보면 계획과 목표가 좀 뚜렷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화를 통해서 부분별 특화 계획 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손만 놓고 있지 말았으면 합니다. 선배, 후배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코 현시점의 어려움을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장을 계획해 나갔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전주시 회장 자리는 도회장 자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도회장은 우리 협회의 큰 틀을 지키면서 정책적 중요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 회장은 행사, 건축사 민원 등 건축사님들과 밀접한 사항들이 많아 몸으로 부딪히며 회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 관내 관공서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설계비 현실화 대안을 하나 준비했는데 조만간 선배님들과 상의해서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 서재형, 양우현, 윤미순 편집위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대표작품들



NH농협 전북통합본부



NH보행새만금연수원



새만금산학융합센터



전북대학교육원



한국능어공공사전북본부



지난 4월 3일 진행된 본지 편집위원들과의 인터뷰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 후원



직원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

— 새로운 임원진 구성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도

호남지역 건축사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임원진을 구성했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13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는 3월 1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는 3월 19일 전주 오펠리스 컨벤션홀에서 신입 임원에 대한 선출과 201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은 다음과 같다.

### 1. 광주건축사회 2015년도 이사 및 감사 명단

직책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역
회장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서구
부회장	정인채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서구
	조휴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북구
이사	김동선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북구
	이수철	건축사사무소 다스	동구
	정상채	초석 건축사사무소	북구
	문강욱	(주)승 건축사사무소	북구
	진수성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광산구
	마재완	건축사사무소 가림	서구
	정재한	모건아트 건축사사무소	광산구
	강형선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서구
	박신남	건축사사무소 유림	서구
	최경양	한샘 건축사사무소	서구
감사	장동원	동원 건축사사무소	동구
	강석훈	건축사사무소 선명	광산구

### 2. 전남건축사회 2015년도 이사 및 감사 명단

직책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역
회장	박용목	다산 건축사사무소	목포시
부회장	김성춘	건축사사무소 맥토	여주시
이사	김정	대진 건축사사무소	목포시
	백종민	라인 건축사사무소	순천시
	손병완	영우 건축사사무소	나주시
	이학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	광양시
	이정심	가인 건축사사무소	목포시
감사	김형규	가영 건축사사무소	장성군
	정운기	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순천시

### 3. 전북건축사회 2015년도 이사 및 감사 명단

직책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역
회장	전병갑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전주시
직전회장	김남중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부회장	최진호	우창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이사	김성수	(주)미래종합 건축사사무소	군산시
	안영목	건축사사무소 대지	익산시
	이두필	두산 건축사사무소	군산시
	김정태	김정태 건축사사무소	남원시
	김경태	엠·에스 건축사사무소	익산시
	이길환	(주)길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김유천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조창호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전주시
	김형윤	건축사사무소 금강	김제시
	이태원	예인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김은선	신도시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이성열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전주시
	강정용	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감사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전주시
	이성수	한아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 한국주거학회, 광주서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하우징2.0-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모색'이란 주제로



한국주거학회(회장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신양파크 등에서 세계 각국의 주거문제에 대한 해법과 21세기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주택과 도시개발에 관한 의제를 설정해가기 위해 2년을 주기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하우징2.0-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1개국 학자들이 참가해 1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손승광 회장은 "본 행사를 통해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주거학회는 건축·주거·실내건축·도시·복지환경·심리·사회학·경제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융·복합 학회로 지난 1989년 창립된 이후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전북 건축사사무소 예감, 전북주거복지센터사무소와 집짓기 강좌 개설

—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



전북 강미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예감)가 초보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 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전북주거복지센터가 주최하고, 건축사사무소 예감이 주관하여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다.

집 설계에 도전할 건축주를 대상으로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강미현 건축사가 직접 예산, 견적,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등 단계별로 건축주가 챙겨야 할 사항을 짚는다. 접수는 오는 4월 20일

까지며, 참가비는 5만 원이다. 강좌 문의는 062-288-9380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강좌를 진행할 강미현 건축사는 2014년에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건축가가 들려주는 후회 없는 집짓기)/효형출판'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건축계에서 큰 화제가 된 여성건축사이기도 하다.

### 개설 강좌 내용안내

일시	강좌 내용
4월 21일(화) 19~21시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 우리 집에는 가족의 이야기가 흐른다
4월 23일(목) 19~21시	에너지 걱정 없이 따뜻한 집 / 패시브하우스 개념과 구현방법 그리고 협소주택&건강주택
4월 28일(화) 19~21시	땅위에 집짓기 /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주가 꼭해야 할 일들
5월 3일(일) 10시~18시	내가 스스로 설계하는 우리집 / 가족의 삶을 집으로 변화 내손으로 설계하는 우리집

## [2015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교육 신청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4월	28일(화) 14:00~18:00	전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조병섭 건축사(서울)	5층 대강당	4시간	60,000원
5월	26일(화) 14:00~16:00		Passive 설계디자인기법	신재익 교수(울산대)		2시간	30,000원
	26일(화) 16:00~18:00		건축공사 감리실무	조병섭 건축사(서울)		2시간	30,000원
6월	30일(화) 14:00~18:00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조병섭 건축사(서울)		4시간	60,000원
7월	28일(화) 14:00~16:00		Passive 설계디자인기법	신재익 교수(울산대)		2시간	30,000원
	28일(화) 16:00~18:00		건축공사 감리실무	조병섭 건축사(서울)		2시간	30,000원

#### ■ 교육신청기간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 출석인정

①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②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출석체크

①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 수강신청 절차

①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②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교육과정안내,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회선택" 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과목명 클릭)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건축사회 제15대 정명철 신임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취임

– 지난 4월 1일 광주 동구 신양파트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장 직무 시작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정명철 회장이 지난 4월 1일 광주 동구 신양파트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회장 직무를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광주건설단체총연합회 이주현 회장과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중 위원장을 비롯한 건축 관계 기관장, 교수, 공무원, 건축사 등 2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정명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간의 소통!’, ‘행정기관과의 소통!’, ‘교육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회장 임기 동안 건축계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임원진들의 소개와 함께 각 구성 위원회 위원장들과 각 구 협의회장 등 조직 전체에 대해 개편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동장소에서 열린 광주건축사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정명철 신임회장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역대 회장 중 최연소로 당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임회장에 안길전 건축사 선임

– 지난 4월 7일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2년(2017년 3월 31일까지) 신임회장으로 선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7일 농성동 신정에서 제2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신임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 2015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제7대 신임회장에는 안길전 건축사(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와 부회장 2인에 이창을 건축사(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고성석 교수(전남대학교 건축학부)가 사무총장에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를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3월 31일까지이다. 안길전 건축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건축사회장직을 역임하고, 2014년에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안길전 신임회장은 “광주지역 건축 3단체(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건축가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하여 광주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것이다”고 밝혔다.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신임회장에 남승진 교수 선출

– 지난 3월 31일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는 지난 3월 31일 광주 동구 금수장 관광 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신임회장에는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남승진 교수를 선출했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부회장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를 선임했다.

남승진 신임회장은 충북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일본 치바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건축심의위원, 전라남도 건축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는 광주전남지역 100여명의 건축사와 교수 등이 이 지역 건축가를 양성하고, 권익 보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축에 관한 지식, 경험, 정보의 국내·외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취임

– 지난 2월 17일 순천시청에서 조충훈 시장으로부터 임명장 받아 3월 2일부터 업무 돌입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는 지난 2월 17일 순천시청에서 조충훈 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명장을 받고 3월 2일부터 향동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사회·물리적 부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동희 교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서 센터의 운영과 관리, 도시재생 추진 사업 지원, 행정과 시민 간의 가교 구실을 수행하게 되며 순천시와 함께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관련 민간단체나 주민 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광주광역시 건공회(건축직 공무원 단체), ‘2015년 정기총회 및 난장’ 개최

– 지난 3월 26일, 서구 치평동 JS웨딩홀에서 진행



광주지역 건축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광주광역시 건공회(회장 : 이규남 광주시 건축주택과장)가 지난 3월 26일 서구 치평동 JS 웨딩홀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난장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건공회원 220여명과 건축 관계 단체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기부 통기타 라이브와 피리 3중주, 소통과 화합의 난장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추진경과 및 총회를 통해 감사 선출 및 회칙개정을 의결하였으며 감사로 광주시 도시디자인과 강권 공공디자인담당과 서구청 도시재생과 이환의 과장이 선출되었다.

한편, 광주 건공회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서로 친목 하는 가운데 회원의 발전과 건축행정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직된 단체이다.

### 학생기자 체험기

정수진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기자로 선발된 뒤 첫 인터뷰 참관이여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하며 출발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전주 길 건축사 사무소로 이길환 건축사님의 사무실이였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 중에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실적제에 대한 비판과 설계부분에서 특

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

학교에서 입찰 과정에 대해 배운 뒤에 들은 내용이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실적제는 어떠한 설계 입찰공고가 나왔을 때 그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이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입찰을 받을 때 실적자가 더 우선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젊은 건축가들이 입찰을 때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사들은 각각의 특화된 설계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많은 건축사분들은 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과 중간 기업들은 설계의 주도권을 갖는 것보다는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점, 대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부분 등 많은 안타까운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후배 양성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설계사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실적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막연히 생각하던 졸업 후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직은 이상만 가지고 있는 학생이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이나 능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많은 생각들을 하고 경험들을 쌓게 된다면 조금은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건축사사무소의 일들과 현재 건축사분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 그리고 나의 문제까지 알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건축사 만평

空約이 아닌 공約이 되길...

심상봉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광주건축사회 업무협약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건진비용 안내

— 전 회원 및 직계가종 중 기본종합검진 이상 신청/ 예약 접수시 단체명 제시

● 내용 : 종합검진비용 감면 적용 / ● 문의 : 062-363-4040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

구 분		기본종합	기본플러스	정밀종합	정밀플러스
남성	보험수가	29만원대	48만원대	83만원대	187만원대
	적용수가	23만원대	38만원대	66만원대	149만원대
여성	보험수가	31만원대	60만원대	98만원대	204만원대
	적용수가	24만원대	48만원대	78만원대	163만원대

\*구분별 검사항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62924번에서 확인할 수 있음

###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백민근 건축사 / (주)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9(오룡동), 애플지식센터 레드비동 제2호
- \* 퇴회**
  - 선명숙 건축사 / 해음 건축사사무소
- \* 전입**
  - 조성호 건축사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5 (마록동), 3층
- \* 변경(상호/소재지)**
  - 유기준 건축사 / (주)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신호로11번길 38-1, 4층(풍암동)
  - 김중호 건축사 / (주)경향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1390(신안동)
  - 양기봉 건축사 / 진명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신창로166번길 5-17(신창동)
- \* 변경(소재지)**
  -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136, 4층(수암동)
  - 김정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삼인 광주 서구 하남대로 698, 601호 (동천동)
  - 정일중 건축사 /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09, 서광주우체국5층(화정동)
- \* 결혼**
  - 김상준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차남 결혼 - 3월 28일 (토)
  - 신중열 건축사 / 한솔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4월 11일 (토) 낮 2시
- \* 부고**
  - 김동성 건축사 / 한림 건축사사무소 본인 별세 - 4월 1일 (수)

###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정영철 건축사 / 에이스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림산로 14(덕진동2가)
- \* 변경(소재지)**
  - 정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즈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1936-17(석구동)
  - 정광수 건축사 / 사원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9(중화산동2가)
- \* 결혼**
  - 이재희 건축사 / 연안 건축사사무소 자혼 - 4월 25일 (토)
- \* 부고**
  - 강문수 건축사 / (주)올그룹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3월 10일 (화)
  - 박해성 건축사 / 해성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3월 13일 (금)
  - 박진주 건축사 / 현창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3월 16일 (월)
  - 이명엽 건축사 / 이무다건축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3월 16일 (월)
  - 채준섭 건축사 / 보람 건축사사무소 장인상 - 3월 16일 (월)
  - 강승기 건축사 / 태평양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3월 18일 (수)
  - 송일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담 부친상 - 3월 18일 (수)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정택훈 건축사 / 정 건축사사무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45(1층)
  - 김용출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17(조선타워 503호)
- \* 변경**
  - 백중민 건축사 / 라인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향로107
  - 김래수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기 전남 광양시 불로로 129 (중동)
  - 범 정 건축사 / 범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4-1, 2층

### News 광주·전남·전북 4·5월 지역축제

- ▶ 04. 01 (수) ~ 04. 30 (목) 청산도 슬로워크길 축제 -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일원
- ▶ 04. 08 (수) ~ 04. 19 (일) 익산 보석박람회 - 전북 익산시, 보석박물관
- ▶ 04. 18 (토) ~ 05. 10 (일) 고창 청보리밭축제 - 전북 고창군, 고창학원농장
- ▶ 04. 30 (목) ~ 05. 03 (일) 2015 전주 골프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
- ▶ 05. 01 (금) ~ 05. 03 (일) 제16회 장성 흥길동축제 - 전남 장성군, 흥길동테마파크
- ▶ 05. 01 (금) ~ 05. 03 (일) 부안마실축제 - 전북 부안군, 일원
- ▶ 05. 01 (금) ~ 05. 05 (화) 제17회 담양대나무축제 - 전남 담양군,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제림 일원
- ▶ 05. 01 (금) ~ 05. 10 (일) 제17회 함평나비대축제 -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173호, 공포 2015년 3월 30일, 시행 2015년 4월 1일]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 강화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두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성능기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  
공동주택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 도입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

## ■ 아파트 대피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방화문 성능 기준 높여 안전 강화...계단 너비 기준도 명시

[대통령령 제26173호, 공포 2015년 3월 30일, 시행 2015년 4월 1일]

대피공간 화재실험 관련 언론 보도 내용(2014.3.26)  
- 아파트 대피공간의 실물모형 화재시험(방재시험연구원) 결과\*, 화재발생 10분 후부터 인명안전기준(미국 NFPA code)인 60°C 초과 확인  
\* 화재실험 대피공간 내부온도 : 10분 후(60°C), 25분 후(100°C), 1시간 후(170°C)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4월 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C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cm, 120cm, 15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욱, 전병갑  
**담당인원** 정명철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관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편집위원**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중호, 양우현, 박주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 | 설 | 명**  
**새로운 시대**  
호남지역 건축사회도 새로운 회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앞으로의 혁신의 3년을 기대해 본다.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반석기초이앤씨(주) 35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어둠



밝은 곳에서 한 번에 퍼뜩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여러 부분이 그때그때 조금씩 드러내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서, 호화 현란한 모양의 대부분을 어둠에 숨겨 버리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여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저 반짝반짝 빛나는 표면의 광채도, 어두운 곳에 놓고 보면 그것이 등불 끝의 어른거림을 비추고, 조용한 방에도 때때로 바람이 찾아온다고 알려 주어, 어느덧 사람을 명상에 빠지게 한다.

- 다니자키 준이치로 저, 그늘에 대하여 중-

건축을 점점 알아가면서 빛이란 요소에 흥미를 느껴 갈 때쯤 서점에서 읽었던 책의 구절이다. 빛이란 요소만 생각했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빛뿐만 아니라 어둠 또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어둠에 대해 불안함, 공포, 약 등등 온갖 안 좋은 단어를 갖다 붙인다.

하지만 사람은 잠을 잘 때도, 편히 쉴 때도 모든 송고함도 어둠에서 비롯된다. 빛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이 있고 그것을 인지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무 많은 양의 빛이 일상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스름레한 상태, 커튼을 친 방 안에서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상태, 어둡지만 약간의 빛이 감도는 상태가 가장 마음이 차분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다.

로마네스크의 건축이나, 한옥, 동양전통 가옥의 느낌은 이러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좋은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처럼 빛과 어둠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다루어 건축물을 설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의 공간이 될 것이다.

### 벚꽃 나무

흰 꽃눈이 내리던 날  
뒤돌아서 가는 너의 모습을 보며  
언제나 그랬듯 하늘만 쳐다본다.

눈인지도 모를 꽃잎만  
내 가슴과 내 눈에  
쌓여져 간다.

다시 돌아보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들리지 않을 주문만 외우다  
이내 사라져가는 너를 보며  
시간의 야속함을 탓해 본다.

벚꽃처럼 금방 피다  
떨어져 버리는 사랑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양상한 가지만 남은  
저 벚꽃나무만 쳐다본다.

### 책 소개

## 「화이트헤드의 “이성의 기능(The Function of Reason)” 을 읽고」

화이트헤드 저 김용옥 역 통나무 1998.12.12

양정무 이사/CTO  
(주)청어람알앤씨 건축사사무소



‘화이트헤드’는 발상의 전환을 이룬 ‘이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화이트헤드는 ‘이성의 기능’에서 욕망을 먼저 설명한다.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주체

(인간)는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망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마치 프로이드가 의식의 배경으로서 무의식을 제시한 것처럼.

이성을 욕망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욕망’으로 정의한다. 지적 능력이 발달한 인간이 욕망을 구현하려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되려는 욕망에 질서를 부여한 상태의 욕망이 이성이라는 것이다. 욕망을 질서 있게 발현하려는 의지를 또 다른 욕망으로 보았다. 단지 욕망의 차원이 다를 뿐, 같은 욕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을 달리하는 욕망이 인간의 지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욕망들의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욕망을 최대한 충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논증을 전개한다. (화이트헤드 ↔ 데카르트)

건축학부 시절 ‘루이스 칸’의 하나의 사물이 되고자 하는 것(What a thing wants to be)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벽돌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느냐” 하는 식의 설명은 장난스럽거나, ‘칸’이 살짝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같았지만, 거장이라는 타이틀에 더 이상의 판단을 유보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이성’의 개념을 접하고 나서,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욕망’들로, 이성이 요소들을 구성해서 건축을 완성하는 ‘건축가’로 치환되었다. ‘칸’의 사유가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또한 ‘건축가’ 또한 건축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비중의 차원이 다르지만)로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의 전개에 까지 이르렀다.

혹자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유기체 철학이라 부른다. 욕망과 이성이 대립하

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한다는 설명은 유기체를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이성이 ‘욕망의 욕망’으로서 전개되는 양상을 “(i) 산다. (ii) 잘 산다. (iii) 더 잘 산다.”는 표현에서 정점을 이룬다. 즉, 이성의 기능을 삶의 기술적 증진으로 해석한 테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성은 욕망의 다른 차원이고, 그 기능은 삶의 수준을 증진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성과 욕망 및 그 기능에 관한 것이지만, 다양한 범주의 주제를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번역, 주석한 판본이 읽기 쉽다. 특히, 사회·도시 및 건축을 유기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건축사들에게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시공/판매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자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 공장 직영**
  -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하게 저렴합니다.
- 공장 직거래**
- 주택 개·보수**
  - 현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 APT, 주택 리모델링**
- 베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기설, 확장, 정판



\* 유사 상호 주의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정동 530번지

☎ 062)373-6548, 6549  
374-6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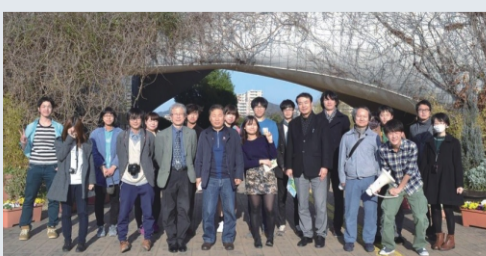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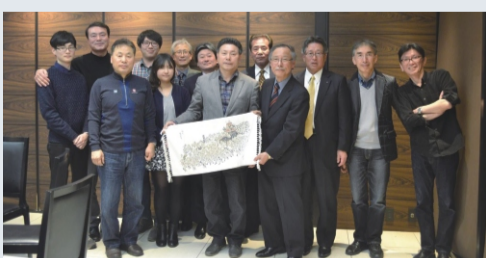
# 일본 JIA 후쿠오카회 디자인리뷰-광주지역 대학생 참가기

- 광주건축사회, 지역 건축인 양성을 위해 광주지역 건축전공 우수 대학생들에게 참가 경비 지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지난 1996년부터 양국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년 마다 건축문화제를 통한 건축교류전과 건축심포지엄을 펼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JIA 후쿠오카회 디자인리뷰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특히 그 행사에는 건축인 후배 양성을 위해 광주지역 건축전공 대학생 3명을 선발하여 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다음은 동행했던 학생들의 소감이다.

※일본 디자인리뷰 : 금년에 20번째로 개최되는 「디자인 리뷰」는 전국 각지의 대학·대학원·전문·고등전문학교 등에서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의 의욕적 작품을 강평하고, 현대 건축이나 도시 환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논의하여 디자인의 가능성과 리얼리티에 대해 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활동공간이다.

이 기획을 통해서, 각지의 대학을 시작으로 건축 교육의 현장, 공공이나 민간의 건축 관계자 및 건축·도시에 관심이 있는 다방면의 분들을 묶어 건축 비평 전체의 질이 향상하는 것을 기대하고 현대의 건축·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자극이 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 공모전과는 다른 일본 공모전

송정섭 학생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배우는 기회였다. 창문 밖으로 보여진 일본의 도시 풍경이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많이 달라서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지만 디자인리뷰를 참관하는 동안에 느꼈던 놀라움은 그보다 훨씬 자극적이었다.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많게는 2년 정도를 연구했다는 우리는 2~3주만에 공모전을 끝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책을 보고 디자인을 따라하는 우리의 수준과는 확연히 달랐다. 또한 우리는 공모전에 상금이 걸려있지 않으면 많이 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에는 상금이 걸려있지 않는다. 일본 학생들은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크리틱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공모전 문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언어의 문제로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의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건축에 임하는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주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이 1~2학년 학생들이었지만 3~4학년으로 착각할 정도로 수준 높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조언을 들으려하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디자인만 하려고하는 한국 학생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건축을 하면서 아마 일본 디자인리뷰에 참가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짧고 빠빠한 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소중한 배움이었다. 그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앞으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을 하여야겠다.

## 건축물 투어를 하며 문화를 배운,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

김예은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후쿠오카에서의 2박 3일 일정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떤 여행보다도 알차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

후쿠오카 디자인리뷰는 일본에서 열리는 많은 건축 공모전 중에서도 큰 규모에 해당한다. 다양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다. 심사위원으로는 학생들의 사전투표를 통하여 선정된 건축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우리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2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작품을 존경하는 건축가에게 크리틱을 받기 위해 모인 학생들의 눈에서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다. 긴 시간의 여정으로 피곤했을 법 한데도 지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서인지 학생들은 각자의 대지와 아이디어, 표현방식으로 개성이 뚜렷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척 흥미로웠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열정이 느껴졌다. 마치 논문을 준비하듯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건축적 실험 정신과 탐구정신 그리고 다양한 대안과 깊이 있는 고민들이 있었다.

2차 크리틱 후 건축가들이 선정한 작품들을 다시 결승에서 심사하였는데, 질의 응답을 통해 좀 더 심도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응원했던 작품이 결승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흥분되기도 했다.

시상 후 모든 학생들이 함께 즐기는 모임에서는 규슈대학 친구들과 대화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다. 친구들의 건축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모습에 내 자신을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다. 거리를 걸으며 건축물 투어를 하고 문화를 배운,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시는 광주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첫날부터 귀국길에 오를때 까지 함께 해주신 후쿠오카 건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나의 건축정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돼

박상윤 학생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3월 6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 디자인리뷰에 참석하게 되었다. 후쿠오카 디자인리뷰는 시작부터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디자인 발전과정, 표현방법, 투자시간 등이 우리의 경우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리뷰에서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논문을 내어도 좋을 수준의 내용들로 가득하였으며 표현방법으로는 스케치가 주로 이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에 반해 스케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표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투자시간 또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었다. 짧은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공모전 스타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리뷰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별다른 보상이 없고 단지 유명 건축가들의 크리틱을 받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적극적이었다. 리뷰가 끝나고 간단히 시간까지 자신의 작품을 들고 심사위원들에게 크리틱을 받는 모습은 건축에 대한 열정의 깊이를 충분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각 작품들의 디자인 과정이나 주제 또한 매우 다양하고 독창적이었다.

시골이나 도시외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것 아닌 농수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 소소한 생활을 유도하는 가 하면, 창문 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나 행동을 분석하는 작품도 있었다. 단순한 재생의 목적을 넘어 건축의 사후까지 설계하기도 하였으며, 별것 아닌 가설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승화시키는 등 자신의 건축정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리뷰를 통해 그동안 나의 건축정신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후쿠오카 디자인리뷰는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의 몇 년 되지 않는 건축정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였으며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주는 기회였다. 끝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광주건축사협회와 관련된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